

2007년의 일본방적업계 동향

- 섬유사업의 구조개혁과 새 사업분야 개척

2006년의 일본방적업계는 설비재편(再編)이 초점이 되었다. 섬유사업의 수익(收益)을 개선하고자 구조(構造)개혁의 일환(一環)으로서 방적·제포(製布), 염색가공, 봉제 등의 각 단계에서 일본 국내나 해외의 생산설비를 다시 검토하였다. 2007년에는 설비를 재검토한 효과가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일본 내에서 소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減少)한 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제품사업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재료(原材料)코스트가 오르고,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으로 채산이 나빠진 케이스도 눈에 띄었다. 원재료코스트가 오른 영향은 2007년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생지나 제품가격에의 전가(轉嫁)가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 설비를 재편한 효과를 기대

2006년에는 섬유사업에 관련된 환경이 더욱 좋지 않았다. 원면 등의 원재료나 에너지코스트 등이 모두 상승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포의 판매움직임이 좋지 않아 코스트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얹어 전가하려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상류(商流)가 변하여 종래형(從來型)의 텍스타일판매는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를 메꾸기 위하여 제품사업을 확대하여 커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경쟁(競爭)이 심해지고 채산이 나빠져 부진(不振)한 상황이 되었다.

시장형편은 더욱 어려워지고 해외의 방적기술 수준도 올라, 2006년에는 섬유

유사업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나 해외에 있는 설비들을 재편하였다. 닛신보는 도야마(富山) 공장의 폐쇄를 비롯하여 일본 내의 방기(紡機) 및 직기를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판덱스(spandex) “모비론”도 건식(乾式)방사에서 손을 떼었다. 시끼보는 시끼보고오찌(高知), 시끼보리빙, 머메이드 가먼트 인더스트리 인도네시아의 섬유관련 3사를 해산하는 등 섬유사업의 구조개혁을 앞질러서 실시하였다. 후지보고사카이(小坂井)도 습식방사(濕式紡絲)에서 물러나고 건식(乾式)방사만을 가동하는 등 기능상재(機能商材)를 특화로 방향을 돌렸다.

방직사업의 시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원재료비나 에너지비가 오르기도 하여 많은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감익(減益)되게 되었다. 2007년의 시황에 대하여는 앞으로 갑자기 호전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07년에는 더 많은 구조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2006년에 추진된 구조개혁의 효과가 기대된다.

◎ 신규사업분야들을 개척 중

상류가 빠르게 변화하여, 종래형의 상거래는 줄고 있는 경향이다. 이를 커버하고자 새로운 상류를 구축(構築)하고 있어 신규분야의 개척이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인 제품사업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내 소재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고, 거래선으로부터 요망이 많아지고 있어 제품사업은 늘지 않을 수 없다는 소리도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래형의 OEM 시장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 그 배경의 하나로 주력(主力) 봉제거점인 중국에서 인민위안화의 가치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 문제가 있다. 이 대책으로서 중국 내에서 현재보다도 코스트가 싼 지역을 찾거나,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 새로운 나라에 봉제거점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또 하나의 대응책은 고부가가치화로, 소재로부터의 차별화나 성형의료(成型衣料) 등 새로운 아이템(item)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개발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2007년에는 한층 더 열심히 개발하여 독자성을 만들어내고, 다시금 방적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의료(非衣料)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예컨대, 닛신보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직포(不織布) “오이코스”로 “코스메(cosmetic; 화장품)”나 “가제(Gaze, 독어)”, 공업용 와이퍼(wiper), 의료기기(醫療機器) 등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구라보는 다축삽입경편(多軸插入經編)소재 “구라마스”나 이축보강네트(二軸補強net) “크레네트”로 산업자재용도를 확대하고 있다.

다이와보노이는 가려움 진정(鎮靜)화 섬유로 의료분야를 개척하려고 있다.

금년은 이제까지의 개척이 얼마나 결실을 보았는지 주목된다. 비의료용은 의료용보다 이익률이 좋은 분야가 많으며, 그 성장이 섬유사업의 수익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